**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세계는 너무나 요란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계절이 바뀌고 열매가 익어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1. A국에서 약 1개월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V 자매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로 만나지 못한 2년6개월 만의 방문이었는데 M부인의 외손자들과 V자매의 조카들이 훌쩍 커 있었습니다. V자매의 남동생 H가정은 오래전 주일모임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주일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손때 묻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거실에 항상 있다고 하여 두 자녀에게도 공부하기 전에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꼭 읽으라고 권면하고 왔습니다. V 자매의 첫째 여동생은 지난해 11월 남편과 사별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고, 대학졸업한 큰아들은 직장을 구하는 중이며 올해 전문학교에 입학한 둘째 아들은 다른 지방에서 4명이 한 방을 공유하는 자취생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영어 성경을 선물했는데, 성령께서 이 가정들을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도록 주께 의탁합니다. 제가 체류하는 중에 2년전 평화조약을 맺었던 접경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하는 곳에서 상대국과 교전이 있어서 80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하여, 지방에는 귀국 전에 2박3일 짧은 일정으로 아쉽게 다녀왔습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요10:16)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2. 기도에 감사합니다. 6월 말에 화상을 입은 2명의 여성 사역자 중 1명은 기본 치료를 하고 한국으로 가 마무리 치료하고 관리 중인데 이곳에서 치료받은 1명은 아직도 상처가 심했던 곳에는 가끔 통증이 있고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가운데 있습니다. 9월 말에 뇌출혈로 쓰러졌던 형제 사역자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거쳐 재활 병원에 입원했지만 하루 20분의 재활치료는 병원비만 축내고 1주일만에 퇴원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화장실 출입이 가능한데 왼팔은 움직임이 미미하여 재활을 위해 오늘 19일 한국으로 갑니다. 이 가정은 형제가 선교훈련 동기로 A국에서 함께 사역했고 그 이후에 단체가 다르지만 I국에서 제가 비자발적입국(추방)시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땅에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뇌출혈과 고혈압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는 부담을 줄이고자 I시 국제공항까지 제가 자동차로 태워다 줄 것을 자매가 요청하여 다녀올 예정인데, 5시간의 장거리 운전과 모든 여정이 순적하고 안전하도록 주님께 의뢰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3. 한국으로 간 A의 유학 생활은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고 아직 한국 전화번호가 없다고 합니다. 지역이 인천이고 저의 신분 때문에 저를 잘 모르는 교회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자매를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4. H부인 가정은 또 바이러스감염으로(?) 열과 구토를 동반한 설사로 온 가족이 아파서 방문을 못하고 있고, U 부인도 외손자 돌보고 있고, N은 친정 어머니가 여름 휴가지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하여 경황이 없고 아이들의 잔병치레로 영혼들과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웃들과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도 방문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5. 올해에 계획했던 출판은 사진과 자료가 삭제되고 수업도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영성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면서 영육혼이 강건하기를 기도제목으로 나눕니다.

2022. 10. 19. 김에스더 드림